< 제 14 장 >

요14장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위로하시며, 자신의 신적 정체성과 성령의 오심, 그리고 구원의 길을 분명히 밝히시는 장이다. 불안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계시였다. 이 장은 감정적인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를 준비시키는 '진리의 선언'이다.

1.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심.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동일한 차원의 신뢰를 예수님께 요구하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셨음을 드러내는 말씀이다.

예수님이 단순한 피조물이라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한 권위와 자격으로 두고 같은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실 수 없다.

믿음의 대상이 동일하다는 것은 존재의 차원도 동일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위로의 형식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14:7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단순한 시간의 전환이 아니라, 이는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를 가리킨다.

그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성령의 깨우치심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됨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보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육안으로 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다는 의미이다. 이 선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심을 밝히는 말씀이다.

이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이다.

14: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ㅅ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안에 거한다"는 표현은 단순히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나 서로 협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가 서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계시며 하나의 본질과 하나의 생명 안에서 함께 존재하신다는 뜻이다.

또한 아버지가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다는 것은, 두 분이 함께 계신 관계가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나뉠 수 없이 하나로 연합되어 계신다는 의미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하시는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친히 행하시는 사역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안에 거함"은 단순한 친밀함이 아니라, 나눌 수 없는 존재의 하나 됨을 드러내는 선언이다.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연합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선언이다.

2. 예수님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하심.

14:16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παράκλητός 파라클레토스)는 'παρά'(곁에서)+'κλετόσ'(보내다)의 합성어로서 '남을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이란 의미를 가졌으며, 법률 용어로서 '법적인 보조자', '변호자', '대리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보혜사'란 단순한 위로자가 아니라, 우리의 곁에서 삶 전체를 보호하고, 모든 문제를 변호하며, 대신 책임지고 돕는 존재를 의미한다.

"다른"(ἄλλος, 알로스)은 전혀 다른 종류가 아니라, 동일한 본질 안에서 또 다른 위격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본질을 가지신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보혜사이셨고, 성령은 영으로 오신 보혜사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 보혜사이며, 성령은 열어 놓은 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이다.
그러므로 두 보혜사는 사역은 구분되지만, 본질은 동일한 하나님 사역의 연속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는 말씀은 성령의 임재가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끝까지 함께하시는 임재임을 의미한다.
구약의 '임하심'이 일시적이었다면, 신약의 '내주하심'은 영구적이다.
(마28:20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14:17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함께 계시고”에서 “안에 계신다”로의 전환이 핵심이다. 관계가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특정 인물 위에 임하셨으나, 이제는 신자 안에 거하신다.
세상은 그 성령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영적 분별이 없기 때문이다.
성령은 감각으로 인식되는 분이 아니라, 영적으로만 인식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의 핵심 사역은 단순히 능력만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14: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는 부활 이후의 나타나심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으로 오실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떠나심은 부재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임재로의 전환이다.

14:19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나를 보리니”. 부활 승천이후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실 것을 말하며, “내가 살아 있고”, 성령으로 오시어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므로,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성령의 임재로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성령을 통해 제자들 안에 역사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며,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 생명이 성령 안에서 신자에게 역사함을 선언하신 것이다.
생명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전달되는 실재이다.

14: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성부), 너희가 내 안에(성자), 내가 너희 안에(성령)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 오순절 성령강림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날은 단순한 ‘날’이 아니라, ‘성부’-‘성자’-‘성령’, 그리고 ‘신자’까지 연결되는 연합 관계의 구조가 완전히 드러나는 ‘날’이다.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키는(τηρέω)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들어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행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실 것을 의미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야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명령’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리고 그 순종의 과정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더 하는 분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이해되고, 확신으로 바뀐다.

성령강림 이전의 제자들과 이후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혼란은 확신으로, 흔들림은 순교적 헌신으로 바뀌었다.

이는 환경의 변화나 성령의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하는 내적 역사이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고 확신으로 전환된다.

성령의 사역은 '새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살아있는 진리로 만드는 것'이다.

3.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심.

<천국의 장소성>

14: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가실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거주를 전제로 한 실재적 공간 개념을 포함한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들은 모두 장소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인데, "집"(οἰκία 오이키아)은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건물이나 거처를 의미하고, "거처"(τόπος 토포스)는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되는 일정한 영역의 공간을 뜻하며, "거할 곳"(μοναι 모나이)은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처소, 곧 영구적인 거주지를 의미한다.

이 세 단어가 함께 사용된 것은 천국이 추상적 상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거주할 수 있는 영역'임을 강조한다.

또한 "가노니", "다시 와서"라는 표현 역시 장소와 이동을 전제로 한 관계적 표현이므로 천국은 신화적이나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동이 전제된다는 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이 실제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거처'와 '거할 곳'의 의미>

'거처'(τόπος)는 아버지 집, 곧 천국이라는 큰 영역 안에 마련된 거주 공간을 의미하며, '거할 곳'(μοναι)은 그 거처 안에서 성도들이 실제로 안식하며 거하게 될 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집'은 전체 영역, '거처'는 그 안의 공간, '거할 곳'은 개인이 머무는 자리로 점점 구체화되는 구조이다.

14:2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미 천국이라는 거처와 성도들이 거할 곳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 말씀하신 것은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이다.
그 길은 십자가에서 댓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기 위함이다.
준비의 대상은 ‘장소’가 아니라 ‘길’이다. 그러므로 “예비”는 건축이 아니라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의미한다.

14:3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이 말씀은 성령강림 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열어 놓으신 ‘구원의 길’ 위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 계속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포함하는 말씀으로, 현재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의 완성이 동시에 포함된 선언이다.

“나 있는 곳에”라는 표현은 천국이 인간적인 혈연관계로 유지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임을 보여준다.
육신은 부모를 통해 형성되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천국은 혈연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천국의 중심은 ‘장소’보다 ‘관계’에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곧 소속을 결정한다

14: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의 질문은 단순히 길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공간적 길을 묻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존재적 길을 말씀하고 계셨다.

14: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당시에는 영혼이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 사상과 여러 종교적 혼합주의가 존재하였으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의 길은 인간의 지식이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 자체이신 분이시다.

또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말씀하심으로 천국이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나타내셨고,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을 생각하려는 이원론적 사상을 부정하시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며 천국 또한 하나님의 영역임을 선포하신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길"은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있으며, "구원"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이다.

4.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말씀하심.

14:10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그의 일을 행하신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사역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일을 이루신다.

여기서 핵심은 '행하시는 주체'이다. 예수님은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도구로 쓰임 받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신다. 사역의 본질은 인간의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다.

14:12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의미한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치유는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기초였으며, 제자들이 장차 감당하게 될 구원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일"이란 기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확장을 의미한다.

육신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큰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도록 사역의 기초를 놓아 주신 것이다.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이며, 구원의 본질을 가리키는 도구였다.

예수님의 사역은 한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성령 이후에는 전 세계로 확장된다.

'더 큰 일'은 질적 우월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범위의 확대이다.

14: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행하리라”(ποιέω 포이에오)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이며,
“간구하다”(αἰτέω 아이테오)는 단순히 어떤 일을 이루어 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직접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라기보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사역에 참여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조건이 15절 “나의 계명을 지켜라”라는 말씀이다.
이 계명은 요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의미이다.
결국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곧 영혼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14:13 “무엇을”(ὅστις 호스티스)
‘누구든지’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대상을 나타낸다.
대상의 제한이 아니라, 참여의 보편성을 강조한다.

14:14 “무엇이든지”(τις 티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그 요청을 들으신다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15:7 “무엇이든지”(ὃ ἐάν 호 에안)
‘이것이든 저것이든’, ‘언제든지’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을 나타낸다.
범위는 넓지만, 전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다.
이 장의 핵심은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임재’이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더 깊은 방식으로 함께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은 위로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결국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난다.